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태양을 머물게 한 사람

(여호수아 10:1-15)

미국에서 사역하는 중국인 부흥사 Leland Wong 목사는 그의 편지지에 이런 말씀을 인쇄해 놓았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쇠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태양계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 합니다. 성경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지구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태양이 머문 것인지 아니면 은유적 표현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때 기브온에서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것은 천지 창조 이후 대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삼 일 후 그 조약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여호수아는 사실상 가나안 정복의 지름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벡 왕을 포함한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동맹을 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며 길갈에 진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저들과 싸웠지만 적이 워낙 강건하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8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도망칠 때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시고 그때 우박으로 인해 죽은 자는 여호수아 군대의 같에 죽은 자보다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 큰 우박이 내렸다는 것은 큰 이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진격할 수 없었을 것이고 금방 날이 저물고 밤이 되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리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12절). 그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 같은 기이한 사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은이니라”(14절).

1. 사실인가, 느낌인가

기브온에 태양이 머물렀다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에 해가 진다는 것은 과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태양은 떠오르거나 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삿 5:20).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이용하신다는 시적 표현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여호수아 역시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들과 한 약속에 대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켰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받은 여호수아가 다음날 원수들을 공격하기 위해 야간 행군을 하며 군대를 이도아고 전투에 임한 것에서도 우리는 그의 신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태양이 머물렀다는 것은 많은 이들은 시적 표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어둠이 덮이니 여호수아로서는 안타까웠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주셔서 짧은 시간에 하루 종일 싸운 분량만큼의 큰 전과를 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군데에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 같은 느낌이나 시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겠다기 보다는 일광 시간을 연장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문법적인 해석을 따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긴 날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의 뜨거운 열로부터 구해줄 것을 기도했다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dom'은 머물다, 조용하다, 쉬다, 그치다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낮의 태양 아래서 전투를 할 수 없어서 여호수아가 태양 빛이 머물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여호수아 군대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반나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전쟁을 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어떤 해석이 바른 것인지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원수들을 완전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고, 때문에 이 사건은 느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7-17).

어떤 이들은 아주 왜소하고 힘이 없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반면 어떤 사람은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큰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진정한 큰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태양도 달도 머물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던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 된 85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계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건넌으며 결국 가나안 정복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여호수아 역시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들과 한 약속에 대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켰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받은 여호수아가 다음날 원수들을 공격하기 위해 야간 행군을 하며 군대를 이도아고 전투에 임하도록 한 것에서도 우리는 그의 신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여호수아처럼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므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 구국기도회

9월2일(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협, 개정 사학법으로 인한 기독교 교육의 이념 실현의 중단, 끊임 없는 국론 분열, 전국의 도박장화 등 끝없이 계속되는 갈등과 대립으로 국가 안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조국의 사황이 성도들의 기도의 무릎에 달려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소중한 우리의 조국의 현실

과 심각한 당국의 현실을 위해 미스바의 기도대회로 모인다.

9월2일(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모이는 이번 비상 구국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의 참석바란다. 조국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응답받아 조국을 위기에서 건지는 에스더와 같은 소임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한다.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

교구별 판매장소 추첨

9월3일(주) 오후 1시 101호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 준비가 한창이다. 각 교구는 벌써부터 바자를 준비하기 위해 수시로 특별 모임을 갖으며 바자에서 판매할 특색 있는 상품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편 바자위원회는 2006 열린바자를 알차게 하기

위하여 매주일 전체 기도회를 갖고 준비에 임하고 있다.

교구별 판매장소 추첨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101호에서 실시된다.

Pilgrims' Vision Trip 설명회 열려

오늘 오후 4시 101호에서

우리교회는 오는 10월30일 출발하는 Pilgrims' Vision Trip(서울교회 성지순례단)을 준비하고 있다. 성지순례는 우리가 성경과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소식을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터키, 그리스 등지를 여행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순교와 신앙의 흔적을 우리 발로 밟아보고 눈으로 보며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에 교회는 이미 성지순례를 신청하여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과 아직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에

게 구체적인 성지순례를 안내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기로 하였다.

Pilgrims' Vision Trip 설명회는 오늘 오후 4시에 101호에서 약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지순례를 신청한 성도들과 신청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오늘 설명회는 성지순례 일정을 책임지고 인도할 CBS Tour에서 한다.

성지순례 신청은 사무국에서 8월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다락방 모임 · 피택자 교육 재개

다락방 모임 : 9월1일(금) · 피택자 교육 : 9월2일(토) 오전 6시

8월 한 달 휴지기 동안 방학했던 피택자교육과 다락방 모임을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첫 주 다시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며 다락방장과 교구 간사들은 교구식구들에게 연락을 취해 다락방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9월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에서는 주일설교 말씀을 교재로 꾸며 이를 갖

고 복습과 적용을 통해 우리 삶을 말씀으로 살찌우게 된다.

또한 피택자 후반기 교육도 9월2일(토) 오전 6시에 시작된다. 피택자들은 주일 저녁예배와 수요일예배 등 공 예배에 필히 참석하여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과제로 주어진 10명 이상 전도 혹은 전도학교를 필히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상담 및 진료

매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오늘부터 5주간 의료선교회 주관으로 의료상담(양-한방 처치 및 간단한 투약)을 실시한다.

오늘 의료상담 및 진료는 신경외과-하인선 집사, 안과-주영광 집사, 한방-박동원 집사, 약제-김정임 집사가 맡아 수고하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람데 특히 우리 이웃 중 진료문의를 원하는 이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교회 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이용하기 바란다.

미리 가본 Pilgrims' vision Trip 2 -이스라엘편

- 갈릴리 호수 -

산상수훈의 현장

유서깊은 베드로 고기의맛

갈릴리 호수 전경



남북의 길이가 20.8km, 동서의 너비가 12.8km로 면적이 약 170Km²나 되어 바다(마 4:18)로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진 사역의 중심지로, <가나>의 혼인잔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나인성>, 군대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거라사> 등이 모두 갈릴리 지역에 모여 있다. 또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가버나움>, 산상수훈을 전해주시는 <팔복산>, 오병이여의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동산 등이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이스라엘의 젖줄에 해당하는 갈릴리 호수는 북쪽으로 헤르몬 산의 연봉에 둘러싸고 있으며, 호수 건너편의 암회색의 골란 고원과 울창한 산들, 종려나무 과수원 등이 질푸른 갈릴리 호수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으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심, 물 위를 걸어오심 등 수많은 기적과 사역을 행하신 현장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역시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며, 갈릴리 호수로부터 24km에 위치해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잡수셨던 민물고기의 일종인 바스(Bass), 보통 베드로 고기로 불리는 생선을 호수에서 순례자들은 맛보게 될 것이다.

갈릴리 호수는 모양이 하프와 비슷하다 하여 구약에서는 악기 이름인 킨노르(Kinnor)에서 따온 킨네렛(수 13:27)이라 불리웠고, 신약에 와서는 게네사렛(눅 5:1), 디베랴(요 6:1)로도 불리웠다. 갈릴리는 '원, 돌레'라는 뜻으로, '원'은 언약을 상징하며 '돌레'는 변방과 땅끝, 이방인의 땅을 의미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 1:8)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선포된 바로 그 곳이기도 하다.

순례팀은 갈릴리에서의 첫밤에 성만찬 촛불 대성회를 드리게 되며, 이튿날 갈릴리 지역을 돌아본 후 호수가에 배를 띄워 갈릴리 선상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나소정(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를 마치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이강인 집사(11교구)

8월 10일 서울을 출발한 선교팀은 8월 11일 밤 어둠이 짙게 내린 파라즈에 도착했습니다. 비단 밤이어서가 아니라 파라즈는 영적인 어둠에 휩싸여 있는 듯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을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들은 과연 복음의 희망입니다. 이들은 자비량 선교를 위해 저마다 수고를 하며 돈을 모으고 시간을 쪼개어 날마다 선교 준비에 여념이 없더니 마침내 준비해간 찬양과 워십댄스, 태권도 시범으로 파라즈의 어린이들을 예수의 매력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침술로, 미용기술로, 물리치료로 또 끼니마다 선교팀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봉사팀과 건축팀까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4일 째 되는 날 건축 중인 교회 앞에 보도블록을 깔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닥에 모래와 시멘트를 뿌리고 보도블록을 얹힌 다음 물을 뿌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이은준 목사님의 아들 평화관을 앞세워 오유식 집사님과 여기저기 다니며 어렵사리 자재를 구했습니다. 이 날 오후 늦게 30여명이나 되는 교회 앞마당에 보도블록이 아름답게 깔렸습



니다. 선교팀과 현지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렬로 서서 나르고 몇 명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블록을 깔았습니다. 현지에서는 보기 힘든 공사 진행이라고 현지 노동자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불일이 있다고 집에 가기 일쑤고, 조금만 힘들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쉬어버리는 그들로서는 며칠이 걸려도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던 사람들의 몸에 밴 게으른 성향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깔아놓은 보도블록을 밟고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카자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몇 분이 물갈이 때문에 팔이 낯았지만 금방 회복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선교팀은 짧은 선교 일정 가운데서도 준비해간 것 이상으로 파라즈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팀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진정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행복을 어둠의 땅에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시민양성 - 신혼가정부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축복속에 세워지는 가정

이장식 성도(12교구, 신혼가정부 외장)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은 일반적으로 구분하더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도가 됩니다.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세는 나의 모든 삶이 제물이 되어 산 제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는 거룩으로 실천해 가야 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연습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중심에서 연습하고 노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롭게 신앙을 무장하고 믿음의 형제자매와의 교제를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교회의 많은 신혼부부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정을 세워가는 신혼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 귀한 시간입니까?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살얼음 길을 걷는 부부들이 신혼가정부에서 가정의 중심과 방향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 간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일꾼양성 - 교구 간사 위료회를 마치고

servus servorum Dei (하나님의 종들의 종)

윤영구 집사(1교구 간사)

지난 토요일(8월19일) 교구 간사들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골1:5)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모처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수길 목사님 내외분, 임상현 장로님 내외분, 그리고 교구 간사님들과 가족 등 모두 29명은 충북 제천의 청풍댐과 문경새재, 수안보온천을 경유하는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오전7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오전 9시40분경에 충북 제천 청풍문화재 박물관에 도착하여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으로 “servus servorum Dei”(세르부스 세르보룸 데이,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정수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맡겨진 사명 더욱 잘 감당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청풍문화재 박물관을 관람하고, 유람선을 타고 충

주호반을 지나면서 말로만 듣던 단양팔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쌓였던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털어버렸습니다.

충주호와 월악산 국립공원을 굽이굽이 도는 관광버스 안에서 임상현 장로님의 제안으로 서로를 소개하며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신앙 간증은 말 그대로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을 선택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하겠다” “부족한 나를 선택하고 믿고 따라준 아내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신혼초기에 교회 가기 싫어서 주일마다 청소와 빨래를 했다”는 고백도 있었고, “고시 준비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회자로 변신”하여야 했던 정수길 목사님의 숙명적인 말씀과, “목회자 아내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도 기억합니다. “좋은

환경과 배필을 통해 신앙의 참다움을 일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임상현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 동안 어느새 시간은 저녁 8시가 넘었고 버스는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기도를 해주신 이종운 위임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것을 거듭 다짐해 봅니다.

크리스천 가족 사랑방 개설

금번 순례자에서는 “크리스천 가족 사랑방”을 개설하고 가족 문제, 진로 문제 등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상담하기 원하시는 성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시는 글에 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할 것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성의 있는 답을 줄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국시민양성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김세웅(고등부)

6개월 전 유학을 가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혼자 몸을 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Leavenworth 한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의 학교생활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너무나 부족해서 선생님들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거의 들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와 문장이 들리기 시작했고, 학기가 진행 될수록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성적도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인 마지막이 제일 좋았고, 드디어 우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학생들 특히, 한국학생에게는 웬만해선 A를 주지 않는다는 종교 과목도 A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유학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세움이 되게 해 주세요"라는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을 틈타 잠시 동안 귀국했을 때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와 함께 시작된 고등부 수련회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개인 기도를 해 주실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수련회에 고등부 교사인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다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두렵지 않습니다.

손예인(중등부)

부모님을 따라 서울교회에 출석한지도 어느덧 4년을 맞았습니다. 서울교회에 와서 훌륭한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과 미국유학의 길을 떠나게 된 것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품과 교회를 떠나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저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에도 언제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의료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좋은 의사가 되어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모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자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모님 떨어져서 생활하는 만큼 항상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딸이 되기를, 그리고 말씀 보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친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선생님께도 칭찬 듣는 예의바른 학생이 되기를 기도할게요."라고 편지를 써주신 어느 집사님의 당부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9일(화) 서울어대 이사회, 30일(수) 기독교 학술원 이사 임원회에 참여한다.
- 학위수여 : 나미용 집사(12교구)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 박사학위 취득(8/29)
- 특담 : 3교구 노병호 홍지나 성도 가정
- 주간식당봉사 : 베드로선교회(8월27일) 바울선교회(9월 3일)
- 금주의 식사및떡제공 : 경흥도 집사김명애 집사 정원석 정보람 가정 조정옥 집사, 홍동기 성도가정 (장래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편지 왔어요

아프리카 방기에서 온 편지

서울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에 문 선교사님을 통해 여러분께 문안 드릴 수 있어서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 2004년 9월 서울의 기도원에서 시행된 기독교인세계대회(AMCF 2004)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적, 물질적 후원을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가 제게 얼마나 많은 영적 축복을 가져왔는지요... 귀국한 이후 저는 국제 아도나이 선교회 성경공부

반에 등록하여 이제 벌써 2학년도를 마치고 마지막 1년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학개 Institute에서 리더쉽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3년 과정인 사법행정학 교대학원 과정을 다니면서 법관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2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롬

중앙 아프리카 방기에서 주안에 있는 다니엘 예편 자 빠 드람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3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각종 열린프로그램 좋은 열매 맺도록
2. Pilgrims' Vision Trip(성지순례단)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도록
4. 사학법 개정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

교회오시는 길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